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

조선시대 신분제와 양반

김성우 교수





전체 목차

01	강의 개요		04
	• 강의 목표 • 주요 학습지점 • 강의 방법과 일정		
02	강의 목차		08
03	강의 교안		11
04	기타 학습요소		45
05	강의 전문(국문)		51

강의 개요

강의 목표

- 조선시대 신분제의 형성과 전개를 심도 있게 살펴본다.
- 조선시대를 신분제 관점에서 이해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 전반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주요 학습지점

조선시대를 신분제를 통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선시대 신분제의 특징과 양천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과 사회상을 살펴본다.
특히, 양란 이후 다양한 조선 사회 변화를 추적하고 신분제의 역사적 후과를 평가한다.

강의 방법과 일정

본 강의는 총 10주차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는 10주 동안 진행된다.
각 주의 강의는 주제별로 3개~4개(차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별로 학습자가 해당 주차의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퀴즈,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읽기자료 등 비영상 학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매주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활동을 마쳐야 한주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의 목차

01	조선왕조의 신분제	1 신분제: 전근대사회의 특징 2 동아시아의 신분제 3 중국 수당(隋唐) 제국과 율령체제(律令體制) 4 율령체제의 동아시아로의 확산 5 조선왕조의 국가운영 기초: 국역체제(國役體制)
02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운영	1 기본 방향: 제민정책(齊民政策) 2 국가운영의 골격: 양천제(良賤制) 3 국가의 작동 방식 4 운영의 모순: 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 문제 5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 상호 간의 갈등
03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1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2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3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4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5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04	새로운 사회계층, 사족(士族)의 등장:1520년대	1 부를 쌓는 사람들 2 농장(農庄)의 발달 3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1): 전가사변형 면제권 4 사족의 특권(2): 정직(正職) 독점권 5 사족의 특권(3): 향촌 운영권
05	사림파(士林派)의 집권과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	1 성리학의 출현 2 훈척세력과의 갈등 3 사림파의 집권과 노선 투쟁 4 성리학적 지식인, 선비의 탄생



강의 목차

06	사족, 국가의 간성(干城)	1	전근대 동·서양의 주요 군사 전력(戰力)
		2	군역, 보편적 사환권
		3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乙卯倭變)
		4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
		5	기병(騎兵) 시대의 종말
07	사족지배구조의 성립	1	임진왜란 시기 사회상
		2	의병 활동
		3	무과 응시와 모곡(募穀) 활동
		4	전후 복구작업의 전개
		5	사족의 특권: 군역 면제권
08	사족의 분화와 위계의 조정	1	전후 사족층의 분열
		2	사족층의 분화
		3	지역사회의 중층성
		4	정치투쟁의 전개: 예안 사례
		5	종족(宗族) 촌락의 형성
09	서얼(庶孽) 문제	1	소설 <홍길동전>
		2	서얼들에게 닫혀지는 사회진출로
		3	17세기 이후의 서얼
		4	통청(通淸)을 둘러싼 갈등
10	문벌사회(門閥社會)의 출현과 역사적 후과	1	조선후기 신분제의 향방에 대한 이해
		2	19~20세기 중반 경상도의 신분제적 계서제
		3	지배 양반의 충족 조건
		4	최종 승자: 경화(京華) 벌열(閥閥)
		5	문벌사회의 역사적 후과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김 성 우



강의 교안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김 성 우

3주차 | 학습목표



- 15세기 조선 왕조의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정성을 살펴본다.
-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
- 연산군 이후 국가재정의 위기와 개혁운동의 좌절 과정을 살펴본다.
-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양천제의 동요를 설명할 수 있다.
- 양인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 성군(聖君)과 현신(賢臣)들의 조우
-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

02.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 급증하는 왕실 재정
- 연산군의 폭정

03.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 연산군의 유산
- 국가재정의 위기
-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04.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 증가 일로의 부세
- 방납구조(防納構造)
- 양인층의 몰락

05.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
-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

3주차 |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3주차 | 학습목표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학습목표

- 조선의 성군과 현신들의 등장을 살펴본다.
- 15세기 조선왕조의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정성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 성군(聖君)과 현신(賢臣)들의 조우
-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정성

성군(聖君)과 현신(賢臣)들의 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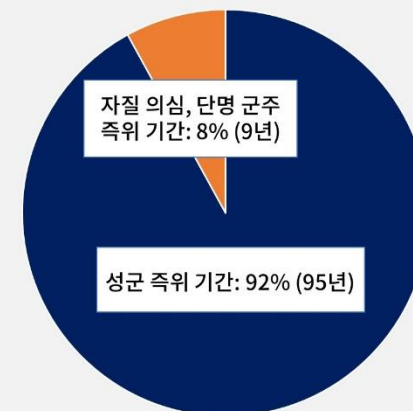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조선왕조의 성군들

- 1대 태조(1392-1398)
- 3대 태종(1400-1418)
- 4대 세종(1418-1450)
- 5대 문종(1450-1452)
- 7대 세조(1455-1468)
- 9대 성종(1469-1494)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조선 초기의 치세 상황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조선왕조의 현신들

- 1대 태조: 정도전, 권근
- 3대 태종: 하륜
- 4대 세종: 황희, 맹사성, 김종서
- 7대 세조: 김종서, 정인지
- 9대 성종: 신숙주, 김종직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재정의 지속적인 흑자 상황

- 공적 장치와 공적 기구를 통해 재정 운영
- 호조(戶曹): 국가재정 전담, 왕실 재정도 엄격하게 관리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재정의 지속적인 흑자 상황

- 세조~성종대 재정 개혁: 왕실 재정 60% 감축
- 매년 10만여 석(石)의 세곡을 비축
성종 말년에 더 이상 비축곡을 쌓을 수 없을 정도가 됨
→ 창고 밖에 세곡을 쌓아 문제가 발생할 정도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재정의 지속적인 흑자 상황

-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세(盛世)로 평가되는
“문경지치(文景之治, 기원전 180~141)”의 상황과 비슷
- “곡식이 싹어나고 창고에는 온갖 재화가 가득한” 상황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15세기 조선 왕조

- ‘문경지치 시대’와 같은 사회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1차시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다음 차시에서는

-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3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 성군(聖君)과 현신(賢臣)들의 조우
-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

02.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 급증하는 왕실 재정
- 연산군의 폭정

03.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 연산군의 유산
- 국가재정의 위기
-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04.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 증가 일로의 부세
- 방납구조(防納構造)
- 양인층의 몰락

05.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
-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

3주차 |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3주차 | 학습목표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학습목표

- 늘어나는 왕실 재정의 상황을 살펴본다.
- 연산군의 폭정과 이로 인한 체제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급증하는 왕실 재정
- 연산군의 폭정

급증하는 왕실 재정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연산군 시기 왕실의 사치와 재정 고갈

- 재정 담당 부서인 호조, 중앙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각사(各司), 예비곡인 군자창, 풍저창 순으로 재정 고갈
-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내년, 내후년의 공물을 끌어옴
 - 인납(引納), 육의전(六矣廩)에서 적자분을 메꿈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연산군 시기 왕실의 사치와 재정 고갈

-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연산군 4) 이후
관행적으로 변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국가재정 확충 방안

- 1501년(연산군 7년) 신유공안(辛酉貢案) 제정
- 관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田稅) 고정
- 공물 및 진상 증대하여 부족분을 보충함
 - 지주(혹은 관료)들보다 양인을 주 대상으로 삼음

연산군의 폭정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연산군의 재정 지출 증가

- 1504년(연산군 10년) 갑자사화 이후 왕실의 재정 지출 급증
- ‘신유공안’으로도 부족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함
→ 연산군 말기(1504~1506): ‘신유공안’보다 10배 큰 규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연산군의 폭정, 재정 위기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2차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다음 차시에서는

-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3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 성군(聖君)과 현신(賢臣)들의 조우
-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

02.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 급증하는 항실 재정
- 연산군의 폭정

03.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 연산군의 유산
- 국가재정의 위기
-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04.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중요

- 증가 일로의 부세
- 방납구조(防納構造)
- 양인층의 몰락

05.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
-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 멸망을 목전에 둔 양조

3주차 |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3주차 | 학습목표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학습목표

- 연산군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국가재정의 위기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 개혁 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연산군의 유산
- 국가재정의 위기
-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연산군의 유산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연산군 이후 중종 시기의 재정 상황

- 왕실: 직계(直啓) 형식으로 공공재원을 빼돌림
- 왕실 재정 = 국가 재정인 상황
- 중종 후반기 왕실 재정: '신유공안'의 10배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명종 시기의 재정 상황

-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의 섭정 시기
- 재정지출이 중종 대 보다 더 심함
- 내수사가 자체적으로 공문 발행: 노비와 토지를 약탈
 - 내수사(內需司): 왕실 소속 재정 담당 부서
- 관료층, 서리층도 부패가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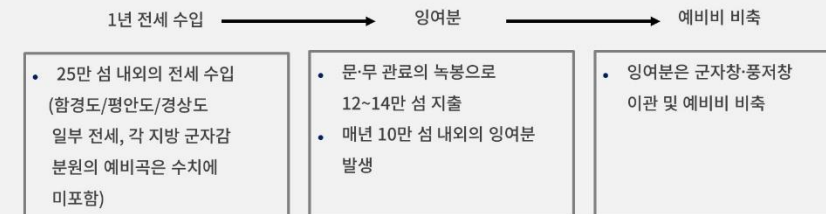


국가재정의 위기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15세기 후반



- 수십년 이상 상황 반복, 곡식 저장 장소 부족으로 인해 창고 바깥에 쌓아서 보관
→ 비와 바람에 노출된 곡식이 썩어 나감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연산군 시기의 재정 상황

- 왕실의 세출 매뉴얼인 횡간(橫看)의 범위를 초과, 지출
- 호조와 각사의 재정이 타격을 입음
- 군자장, 풍저창, 사섬시(司贍寺) 등에 비축된 예비비 감축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중종 시기의 재정 상황

- 1517년: 25만 섬의 전세 세입(稅入) 유지 필요
→ 평안도와 함경도의 비축미를 중앙 재정으로 옮김
- 1529년: 군자창의 지방 분원에 비축된 곡식도 중앙으로 옮김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명종 시기의 재정 상황

- 세입(稅入) 25만 석 유지를 위해 안간힘
→ 중앙과 지방의 예비곡이 급격히 감소함
- 명종 중반 이후: 세입이 14만 섬 이하로 떨어짐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명종 대 중반 이후

- 양인층 감소: 농민층의 노비로 투탁, 유리, 대규모 이주
- 전세 납부 대상 토지가 사라짐
→ 1553년: 관료에게 녹봉 미지급 사태 발생
→ 1556년: 중앙 관료에게 지급했던 직전세(直田稅) 분급 중지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국가경상비의 수입, 지출 변동 추이



[출처01] 김성우, 『조선전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국가예비비의 감소추이



조선 시대 연도별 국가예비비

[출처02] 김성우, 『조선전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개혁세력의 활동 : 15년

- 중종 전반 기묘사림의 활동 시기(1515~1519)
- 인종 대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시기(1544~1545)
- 선조 초반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시기(1567~1574)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개혁 운동의 좌절

- 중종 전반 기묘사림의 활동: 1519년 기묘사화 발발
- 인종 대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을사사화 발발
- 선조 초반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1574년 동서 분당(東西 分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 개혁파는 양인 회복과 토지 확보에 초점
- 종량책, 한전론 개혁안 제시
 - 왕실, 훈척 등 기득권층 반발
- 2차례 사화, 동서 분당으로 개혁이 좌절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마무리

- 16세기의 상황
 - 국가 재정의 파탄과 농민들의 부세 급증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3차시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다음 차시에서는

-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3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 성군(聖君)과 현신(賢臣)들의 조우
-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

02.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 급증하는 왕실 재정
- 연산군의 폭정

03.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 연산군의 유산
- 국가재정의 위기
-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04.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 증가 일로의 부세
- 방납구조(防納構造)
- 양인층의 몰락

05.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
-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

3주차 |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3주차 | 학습목표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학습목표

- 조선왕조의 늘어나는 부세 상황을 살펴본다.
- 조선왕조의 세금 제도인 방납구조를 이해한다.
- 양인층의 몰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증가 일로의 부세
- 방납구조(防納構造)
- 양인층의 몰락

증가 일로의 부세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신유공안’의 특징

- 지주층, 관료층의 반대를 예상
→ 가호세(家戶稅)인 공물, 진상을 증액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신유공안’의 한계: 양인층의 부담 증가

- 공물, 진상: 획득과 구입, 수송까지 담당자가 부담해야 함
- 양인들은 물자 수송을 위해 각종 요역에 동원되었음
- 공물, 진상은 인도세인 요역과 결부 → ‘잡역(雜役)’이라 불림
- 농민층의 잡역 부담이 증가함



방납구조(防納構造)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방납(防納)

- 공물, 진상의 물품을 농민층에게 직접 받지 않음
- 공물주인(貢物主人)을 매개로 하여 독점적으로 납부하게 함
- 15세기: 사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음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방납(防納)의 제도화

- 연산군 대 이후 점차 구조화 됨
- 공물주인을 거치지 않으면 공물, 진상 납입이 불가능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방납 (중종 대)

- 중앙 각사의 담당 서리, 노비들이
지방 공리(貢吏)들을 침탈하기 시작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방납 (명종 대)

- 먹이사슬로 인한 이권화 및 면허권 판매
- 공납권의 이권화:
지방의 수령, 공리 → 중앙 각사의 관원, 담당자 → 권세가 → 왕실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방납 (명종 대)

- 왕실, 권력가와 결탁한 부상(富商), 대고(大賈):
공물권 매입, 주인(主人)이 되어 농민들로부터 최대한 차익을 뽑아냄
- 독점 가격이 형성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이상한 가격

- 양 한 마리 = 면포 70필(쌀 23섬)
- 종이 10권 = 나무 100그루
- 활 재료 = 쌀 100여 섬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왕실, 권세가의 축재

- 농민이 납부하는 공물, 진상의 70~80%
→ 중간 매개인(독점 상인, 왕실, 권세가)이 차지
- 최초의 징수액 20~30%만 국가재정으로 활용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방납구조

- “나라와 백성을 모두 곤궁하게 만듦”
- 한편, 극소수의 왕실과 권세가들만 배를 불림



양인층의 몰락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왕실, 중앙 각사의 재정 충당 노력

- 지방 군현의 토지, 농민(전, 민)을 침탈함
- 혈역(歇役), 복호(復戶) 제시
- 지방관청의 수색, 추쇄로부터 투속 지방민들을 보호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왕실, 중앙 각사의 재정 충당 노력

- 불법적 탈점(奪占), 고리대, 개간을 통해
농민(전, 민)을 확대시킴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농민(전, 민) 유실의 부작용

- 남아있는 군현민들의 고통이 심함
 - 투속민들의 세금은 그대로 남음
 - 절호(絶戶)에 대한 감세가 없음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양입위출(量入爲出)

- 1년 재정수요를 미리 예상 후 지출을 조정하는 제도
- 재정 규모가 미리 정해짐
 - = 각종 부세의 총액이 미리 정해짐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양입위출(量入爲出)

- 총액제(總額制)로 운영됨
 - 예: 전총(田總), 호총(戶總), 군총(軍總)
- 토지, 가호, 군인이 줄어들어도 정부와 각 기관은
미리 정해진 액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 예: 인징(隣徵), 족징(族徵)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양입위출(量入爲出)의 한계

- 따라서 마을에서 한 가호가 도망갈 경우,
나머지 가호에게 세금을 징수함
- 결국 마을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짐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100가(家)의 고을이
10가로 줄어들었고,
10가의 촌락이 1집도 살지 않았다.”**

- 16세기 중반 어느 지방을 시찰한 알렐여사의 보고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마무리

- 농민층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양천제의 동요
- 지배층 축재와 사치 낭비 피해
 - 피지배 양인층에게 집중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4차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다음 차시에서는

-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3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15세기: 이상적인 왕조 체제

- 성군(聖君)과 현신(賢臣)들의 조우
-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

02. 연산군(燕山君)의 폭정과 체제 위기

- 급증하는 왕실 재정
- 연산군의 폭정

03.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 연산군의 유산
- 국가재정의 위기
-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

04.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

- 증가 일로의 부세
- 방납구조(防納構造)
- 양인층의 몰락

05.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
-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

3주차 |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3주차 | 학습목표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학습목표

-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해한다.
- 양인층의 국역 부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계층 분화를 살펴본다.
-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멸망 위기의 조선왕조 사회를 살펴본다.

학습내용

-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
-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조선 초기 양인층의 법적 지위

- 조·응·조 3세와 군역·직역 같은 국역 의무를 수행
- 반대급부로서 사환권(仕宦權) 보장받음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군역체제 수행의 경제적 조건

- 3-4결[3만-4만 평] 정도의 토지
- 성인(남성) 3~4명 보유
→ 중소지주에 가까운 경제력 = 상층 양인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상층 양인

- 국역체제 참여시 노비 소유
- 노비를 농업경영에 활용, 안정된 경제 생활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하층 양인

- 대다수 양민 농민
- 취약한 경제적 입지
- 사환권의 향유가 거의 불가능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상층양인

- 국역 수행 및 사환권 향유 보장

하층양인

- 사환권 향유 불가능

천인

(or 노비)

- 국역 참여 불가능

국가는 양안과 호적, 군적 작성
→ 양천제적 인민 편제와 국역 동원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상층 양인에 초점을 맞춰 국역 체제 완성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15세기 양인층의 국역 부담

전세와 공물, 진상액

- 모두 합쳐도 생산량의 1/10에 불과할 정도로, 경세(輕稅)였음
- 왕실, 중앙기관의 절약·절검과 엄격한 재정 운영이 이러한 경세를 가능케 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15세기 양인층의 국역 부담

군역

- 1464년(세조 10) 보법(保法) 실시로 군호(軍戶)수가 크게 증가
- 성종 때에는 군호를 17여만 호로 조정했고 이후 임진왜란 전까지 15여만 호를 유지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15세기 양인층의 국역 부담

연산군의 폭정

- 1501년 ‘신유공안(辛酉貢案)’ 제정 이후 공물 가정(加定)이 본격화하고 별공(別貢)이 잦아짐
- 양인층의 잡역(雜役) 부담이 늘어나며 농사도 못한 채 잡역 동원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16세기 양인층의 부담 급증

- 양인층의 재생산 기반이 급속도로 약화
- 충청도의 ‘홍길동의 난’을 비롯해 크고 작은 도적들의 발호가 시작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군호의 재편성(성종 대)

- 군호: 15만~17만 호로 유지
- 초과한 가호는 ‘호수-보인 체제’ 아래 술정(率丁) 추가
- 남는 병력은 ‘여외병(旅外兵)’이라는 예비군으로 편성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군호의 재편성(성종 대)

- 1486년(성종 17) <병오군적(丙午軍籍)>
 - 갑사(甲士) 1호(戶): 보인 4명, 술정 8명 등
 - 호수(戶首)가 복무로 인한 손실을 보인과 술정이 지원함
 - 호수(戶首): 상층 양인 / 보인, 술정: 하층 양인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군호의 재편성(연산군 대)

- 농민층의 몰락 → 이전의 군호 편성, 유지가 어려움
- 그러나 군호의 정원은 15만~17만 호로 유지함
- 예전의 군호를 재구성하여 군역 정원을 충원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군호의 재편성(연산군 대)

호수-보인-솔정
체제



호수-보인
체제



호수 단독
체제

- 갑사호의 경우 원래 13명이 한 조
- 중종대에 5명 → 1명으로 급감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군호의 재편성(중종 대)

- 어린아이를 호수로 차정(差定)
- 모든 남정(男丁)을 호수나 보인으로 추가
- 가호의 경제력 여부를 보지 않음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상층 양인의 군역 이탈

- 가중된 세금으로 상층 양인들이 군호 편제를 꺼림
-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하층 양인을 군호에 강제 편입시킴
- 강제된 군역 의무: 농민층의 몰락을 부추김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군역의 ‘양역세’로 전환

- 이제 군역은 가난한 하층 양인들이 전담함
- 이유: ‘양인이라는 신분 때문’
→ 이에 따라 군역은 신분세인 ‘양역세(良役稅)’로 전환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하층 양인의 군역 이탈

- 16세기 이후 하층 양인들의 부세, 군역 부담이 증가
- 부세와 군역을 피하기 위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편입됨
→ 사민(私民)과 사전(私田)의 급증
→ 국가재정 기반의 황폐화, 양인 농민층의 몰락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하층 양인의 군역 이탈

- 왕실 소속 내수사, 관청, 지배층:
잡역 면제 등 특혜를 제시 몰락농민층을 유인함
- "사가(私家)는 날로 풍요로워지고
공가(公家)는 날로 피폐해진다."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양인층의 계층 분화

- 상층 양인: 군역 면제
- 하층 양인: 신분세인 ‘군역’ 부담 증가
→ 공적 영역에서 이탈,
왕실 및 권세가 등 농장으로 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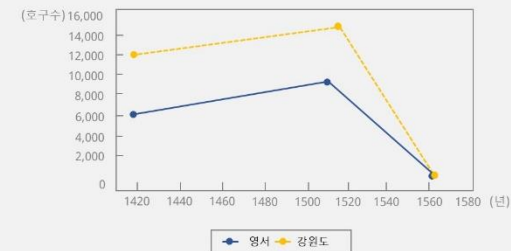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양인층의 계층 분화

- 상층 양인 = 군역 면역자 = 지주
- 하층 양인 = 군역 부담자 = 무전자(無田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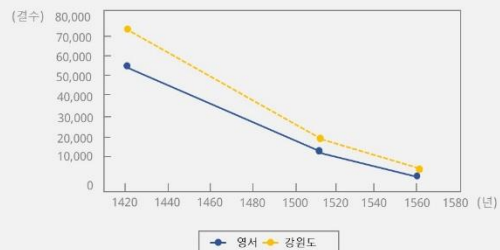
16세기 영서 및 강원도 호구 변동 추이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16세기 영서 및 강원도 수세전 변동 추이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조선 초기의 양인

- 국가: 양인의 국역 부담 최소화, 적극 개입
- 국역 부담 < 사역 부담
- 천인보다 양인 신분을 선호
- 인구 구성: 양인 70% 노비 30%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연산군 대 이후의 양인

- 국가: 양인층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취원으로 간주
- 권리는 사라지고 의무가 커짐
- 천인층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양인보다 유리해짐
→ 양인층의 천인층으로의 이동 증가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양소천다(良少賤多)

- 양인의 천인화 현상 심화
- 양인이 줄어들고 천인이 증가하는 ‘양소천다’ 현상 발생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고려 후기의 노비 법제

- 일천즉천법(一賤則賤法), 종천법(從賤法)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자손 모두 노비
- 급격한 양소천다 현상 발생 → 왕조 몰락 초래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조선 초기의 노비 법제

- 일천법(一賤法)
- 1414-1468년: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 1468-1494년: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 1484년 <경국대전> 반포 이후 점차 ‘일천즉천법’으로 전환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양인의 노비화: 압량위천(壓良爲賤)

- 양인들을 강제로 노비로 만드는 방식
- 조선초기 압량위천은 전가사변형(全家徙邊刑)에 처해지는 중범죄
- 종량(從良)정책이 실시되던 조선 초기에 주로 적용
- 국가기관, 권세가, 지주의 강제 노비화 작업이 쉽지 않았음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양인의 노비화: 투탁(投託)

- 몰락 양인층이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는 방식
- 양인을 오인하여 노비로 만든 범죄[冒認良人爲奴婢律] 적용
: 곤장[丈] 100대 + 징역[徒] 3년형에 처해짐
- 16세기 이후에는 이 법의 적용이 대세가 됨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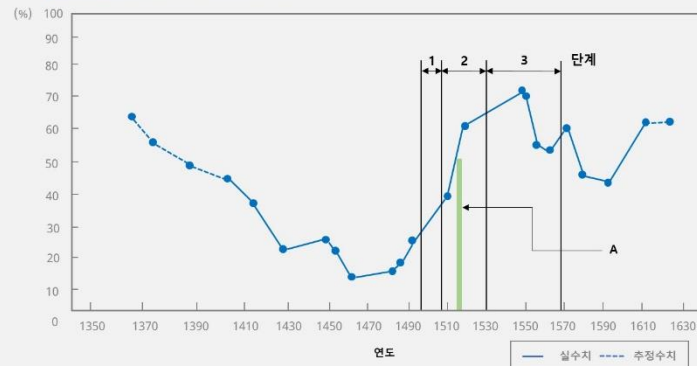
양인의 노비화: 양천교혼(良賤交婚)

-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켜, 그들의 소생을 노비로 전환하는 방식
- 15세기 후반 노비법이 종천법으로 전환하면서 노비 증식 방법으로 널리 활용됨
- 국역체제의 와해 이후 지주들이나 국가 기관은 이 방법으로 노비를 증식시킴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14~17세기 경상도 안동과 경주 양반가의 양천교혼 비율



양반들의 사노비 결혼 규제

- 혼인 대상 범위: 양인, 관노비
- 이문건의 일기의 사례:
→ 다른 사노비와 결혼할 경우 처벌함
- 양천교혼을 통해 양반을 증식시킴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조선의 인구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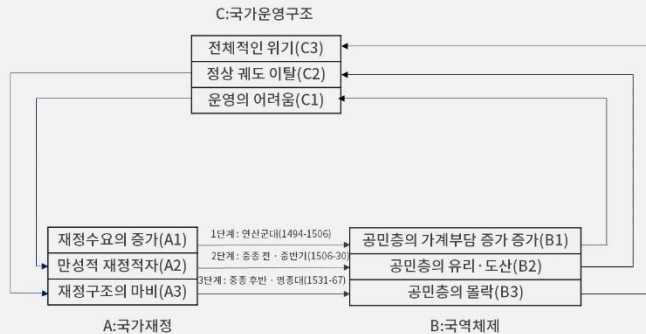
- 15세기: 양인 70%, 노비 30%
- 16세기 초반: 양인 50~60%, 노비 40~50%
- 16세기 중반: 양인 30%, 노비 70%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국가 붕괴 상황의 전개 과정



[출처] 04 김성우, 『조선전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극심한 사회 양극화

- 공민·공전의 급감과 사민·사전의 급증 추세가 교차
- 한쪽에서는 농장 경영과 노비 지배를 통해, 혹은 중앙과 지방의 공권력에 기생한 부정축재를 통해 엄청난 재화를 축적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재화의 서울 집중

- 서울: 부를 축적한 이들의 풍요와 낭비가 이루어짐
- 지방
 - 민심이 흉흉하고 과서(掛書)가 붙음, 도적이 출몰함
 - 궁핍한 농민층이 광범위하게 증가, 전염병이 창궐함
 - 전국 각지 도적들의 붕괴: '임꺽정의 농민반란'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악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왕조의 위기

- 16세기 사민·사전이 급증:
 - 고려 말 상황과 유사하다는 견해 제기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 가난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건실한 가호(家戶)도
몇 섬의 곡식만을 보유했다. ”

1591년(선조 24) 김성일(金誠一)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300년을 더 유지한 조선왕조

- 조선왕조는 16세기 중·후반 왕조 말기적 상황에 처했음
- 조선왕조의 지속성은 사적 영역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계층 사족층(士族層)에 주목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마무리

- 양인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
→ 피지배 양인층에게 집중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마무리

- 이상적인 왕조체제였던 15세기의 사회상
-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 인한 체제 위기
-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 농민층의 위기와 양천제의 동요
- 양민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
➡ 조선왕조의 국역체제 붕괴와 양천제의 동요

3주차 국역체제(國役體制)의 붕괴와 양천제(良賤制)의 약화 | 5차시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다음 차시에서는

- 양인층(良人層)의 몰락과 노비(奴婢)의 급증

REFERENCE



김성우, 제2장 「16세기 국가 재정 수요의 증대와 재정운영의 위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51-93쪽.

김성우, 제3장 「공민층의 몰락과 국역체제의 해체」, 같은 책, 95-159쪽.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기타 학습요소

읽기자료

김성우, 제2장 「16세기 국가 재정 수요의 증대와 재정운영의 위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51-93쪽.

김성우, 제3장 「공민층의 몰락과 국역체제의 해체」, 같은 책, 95-159쪽.

<https://www.ypbooks.co.kr/book.yp?bookcd=1420600235>

퀴즈

아래는 15세기 정치와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옳바르지 않는 것은?

- ① 1392년 조선왕조의 개창 이래 15세기 마지막까지의 시대는
성군(聖君)들과 현신(賢臣)들이 조우하는 가운데 성세(盛世)를 구가하였다.
- ② 양천제적 신분 구조 아래 국역체제가 건실하게 작동하면서 왕조가 순항하였다.
- ③ 근검절약하는 기풍 속에 왕실과 지배층은 과다 지출, 사치, 무절제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였다.
- ④ 성종 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비 진작 운동이 전개되면서,
서울 창고에 쌓였던 많은 곡식이 대부분 소진되었다.

정답: ④

해설: 조선 초부터 성종 대까지는 근검절약 기풍이 계속 유지되어, 서울의 관창(官倉)인 군자창(軍資倉)과 풍저창(豐儲倉)에는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곡식을 바깥에 쌓아둘 정도로 보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퀴즈

연산군 대는 국가재정 운영에 큰 위기가 닥쳐온 시기이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는 것은?

- ① 연산군과 왕실, 중앙의 권세가들이 점차 사치와 방종에 물들어가면서, 중앙 재정부서의 각 창고에 비축해두었던 곡식과 재화들을 전용하였다.
- ②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관료들은 백성들이 내년 혹은 내후년에 바칠 공물까지 미리 끌어다 쓰고, 육의전(六矣廛)과 같은 상업기관을 통해 강제로 물건을 공급하게 하였다.
- ③ 재정적자가 계속되자 1501년(연산군 7) 신유공안(辛酉貢案)을 제정하여, 중앙재정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 ④ 1498년 무오사화(연산군 4), 1504년 갑자사화(연산군 10)를 연이어 겪은 이후, 연산군과 관료들은 재정 긴축을 통해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답: ④

해설: 1501년(연산군 7) 신유공안(辛酉貢案) 제정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산군 말기에는 신유공안의 재정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재정지출로 만성적자가 더욱 심해졌다.

퀴즈

중종 대와 명종 대 국가 운영과 중앙 재정 상황을 설명한 것 가운데,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연산군 대에 발생하였던 적폐 청산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 ② 국왕과 왕실은 재정 담당 관서인 호조(戶曹)를 경유하여 필요 경비와 재정을 총당하는 등,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 ③ 명종과 왕실은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긴축재정의 고삐를 한층 더 강하게 조았다.
- ④ 국가재정의 만성적 적자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1556년 중앙 관료의 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던 직전세(職田稅)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정답: ④

해설: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에도 연산군 대의 적폐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국왕과 왕실이 사용하는 재정도 직계(直啓) 형식으로 지출되면서 호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명종과 모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주도하는 왕실의 낭비와 소비는 중종 대를 훨씬 능가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556년 중앙 관료에게 생활 보조 수단으로 지급하던 직전세(職田稅)가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퀴즈

16세기는 국역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는 것은?

- ① 16세기 초반 위기의식을 느낀 기묘사림(己卯士林)은 개혁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 노비종모법(從母法)과 한전론(限田論)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 입법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 ② '신유공안' 제정 이후 전세는 고정된 반면, 공물과 진상이 대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세는 가볍고 잡역(雜役)은 무겁다."는 조세 상의 불합리성이 두드러졌다.
- ③ 잡역(雜役) 부담의 급증으로 양인들의 경제적 재생산기반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양인들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 ④ 경제적으로 파산한 양인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숨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농장이 확대되고 노비가 급증하였다.

정답: ①

해설: 개혁세력인 기묘사림(己卯士林)은 1515년부터 1519년까지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과 한전론(限田論)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렇지만 국왕과 왕실, 권세가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1519년 기묘사화의 발발로 개혁정치가 좌절되었다.

강의 전문(국문)



1

00:00:52,052 --> 00:00:53,920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53,920 --> 00:00:58,224

조선시대 신분제와 양반 강의를 맡은 김성우입니다.

3

00:00:58,224 --> 00:01:09,302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제민 정책, 양천제를 통해 조선 초기 신분제의 운영과 국가 운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

00:01:09,302 --> 00:01:27,153

하지만 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 문제,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 상호 간의 갈등, 긴장이 발생하면서 조선 왕조가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00:01:27,153 --> 00:01:36,096

이번 강의에서는 16세기 이래 국역체제가 붕괴하고 양천제 또한 동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6

00:01:36,096 --> 00:01:45,905

이를 위해 강의 순서는 이상적인 왕조체제였던 15세기의 사회상,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한 체제의 위기,

7

00:01:45,905 --> 00:01:58,751

국가 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농민층의 위기와 양천제의 동요, 양인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8

00:01:58,751 --> 00:02:09,696

이번 강의를 통해 조선이 16세기 이후 변화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

00:02:09,696 --> 00:02:19,005

이번 차시에는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문경지치를 방불케 하는 15세기 조선사회를 알아보겠습니다.

10

00:02:19,005 --> 00:02:29,149

여러분은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서 건국 당시 조선이 지향한 왕조 체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

00:02:29,149 --> 00:02:42,328

성군들은 1대 태조, 3대 태종, 4대 세종, 5대 문종, 7대 세조, 9대 성종 등등입니다.

12

00:02:42,762 --> 00:02:51,404

전체 15세기 102년 가운데 95년 동안 성군들이 치세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

00:02:51,404 --> 00:03:01,681

반면에 자질이 의심되거나 단명한 군주는 2대 정종, 6대 단종, 8대 예종 등 세 명입니다.

14

00:03:01,681 --> 00:03:09,055

이 국왕이 즉위하고 재위한 시기는 9년에 불과합니다.

15

00:03:09,055 --> 00:03:15,962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군들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나라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16

00:03:16,196 --> 00:03:18,398

그리고 현신들입니다.

17

00:03:18,398 --> 00:03:27,407

고려 말 조선 초의 개혁 개방 분위기 아래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관료들이 중앙정계로 대거 진출했습니다.

18

00:03:27,407 --> 00:03:34,681

과거와 군직을 통해 검증된 관료들이 중앙의 고위직으로 집중되는 구조였습니다.

19

00:03:34,681 --> 00:03:40,920

그리하여 태조 대는 정도전, 권근과 같은 기라성 같은 관료들이

20

00:03:40,920 --> 00:03:49,462

태종 대는 하륜을 비롯한 또 명망 있는 관료들이, 세종 대는 황희, 맹사성, 김종서과 같은 관료들이

21

00:03:49,462 --> 00:04:04,110

세조 대는 정인지, 신숙주 등등 성종 대도 김종직 등등의 정말 실력 있고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명신들이 많이 중앙에 포진해서 국왕을 도와서 나아갔습니다.

22

00:04:07,113 --> 00:04:12,952

그래서 성군과 현신이 조우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3

00:04:12,952 --> 00:04:22,895

이렇게 성군과 현신들이 조우하는 그런 사회에서 경제도 발전하고 재정도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24

00:04:22,895 --> 00:04:31,437

양천제적 신분 구조 아래 국역체제가 건실하게 작동하면서 조선왕조는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25

00:04:31,437 --> 00:04:41,748

근검절약하는 기쁨 속에서 왕실과 지배층은 과다 지출, 사치, 무절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26

00:04:41,748 --> 00:04:45,652

이런 기풍으로 인해 고려 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27

00:04:45,652 --> 00:05:00,433

고려 왕조의 멸망을 잘 알고 있던 조선왕조 초기에 군주와 관료들은 그런 기풍들을 배격하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긴장과 절제 속에서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

00:05:00,433 --> 00:05:05,872

이러다 보니 중앙재정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29

00:05:05,872 --> 00:05:10,443

공적 장치와 공적 기구를 통해서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30

00:05:10,843 --> 00:05:17,984

재정 담당 부서인 호조가 국가 재정을 전담하면서 왕실 재정도 엄격하게 관장했습니다.

31

00:05:17,984 --> 00:05:25,258

호조가 왕실·국왕의 재정까지도 관장하는 그러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32

00:05:25,258 --> 00:05:33,366

세조, 성종 대 재정개혁으로 세종 대보다도 무려 왕실 재정을 60%나 감축시켰습니다.

33

00:05:33,366 --> 00:05:38,771

그러니까 세조는 아주 절검, 절약하는 아주 대표적인 군주였습니다.

34

00:05:38,771 --> 00:05:48,915

그러다 보니 매년 10만여 석 이상의 세곡이 남아 돌아서 군자창이나 풍저창에 비축해 두었습니다.

35

00:05:48,915 --> 00:06:04,764

이렇게 오랫동안 비축분이 늘어나니까 성종 말년에는 더 이상 비축곡을 쌓아둘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창고 밖에 세곡을 쌓아두게 되면서 세곡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6

00:06:05,598 --> 00:06:13,373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세라고 평가받는 시기가 한나라 초기에 문경지치의 시기라고 합니다.

37

00:06:13,373 --> 00:06:15,274

문제 · 경제의 시대예요.

38

00:06:15,274 --> 00:06:18,544

이 시기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39

00:06:18,544 --> 00:06:29,188

곡식이 썩어 나가고 창고에는 온갖 재화가 가득한 바로 이 시기가 15세기 후반에 한국 역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40

00:06:29,188 --> 00:06:38,965

따라서 한국 역사의 15세기는 바로 중국의 문경지치에 방불하는 그와 같은 성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

00:06:39,132 --> 00:06:43,102

이상 15세기 조선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42

00:06:43,102 --> 00:06:54,180

이를 통해 조선 왕조의 성세가 중국의 최대 성세 가운데 하나인 문경지치 시대에 방불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43

00:06:54,180 --> 00:07:00,253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4

00:07:00,253 --> 00:07:10,430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한 성종의 아들이 조선 최고의 폭군으로 손꼽히는 연산군이었기 때문입니다.

45

00:07:10,596 --> 00:07:25,111

다음 차시에는 연산군의 폭정 그리고 조선 왕조의 체제가 이 연산군의 폭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위기를 맞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7,794

지난 시간에 15세기 조선사회가 이룩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알아보았습니다.

2

00:00:27,794 --> 00:00:40,206

이번 차시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최악의 폭군으로 일컬어지는 연산군의 폭정, 그로 인한 체제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00:00:40,940 --> 00:00:46,312

조선의 성세라고 할 수 있는 15세기의 마지막 군주는 성종입니다.

4

00:00:46,312 --> 00:00:50,050

성종은 부지런하고 호학군주로서 유명합니다.

5

00:00:50,050 --> 00:00:56,723

그리고 성종 대 거의 대부분의 조선시대의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6

00:00:56,723 --> 00:01:06,900

그런데 성종이 젊은 나이로 급서하고 아들인 연산군이 즉위하게 됩니다.

7

00:01:06,900 --> 00:01:10,070

연산군은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8

00:01:10,070 --> 00:01:22,048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직무에 임하지도 않고 대신에 사치와 낭비 무절제로 대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9

00:01:22,048 --> 00:01:26,519

그러다 보니 왕실 재정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10

00:01:26,519 --> 00:01:32,092

무절제한 사치와 낭비로 왕실 재정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11

00:01:32,092 --> 00:01:47,040

재정 담당 부서인 호조, 왕실과 중앙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각사들, 예비곡인 군자창과 풍저창 순으로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12

00:01:47,040 --> 00:01:53,046

왕실의 재정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온갖 재정들을 다 끌어 쓰게 되는 것이죠.

13

00:01:53,046 --> 00:01:56,683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재정이 고갈됩니다.

14

00:01:56,683 --> 00:02:05,725

벌써 내년, 내후년의 공납을 먼저 끌어 쓰는 인납, 인납이란 말은 끌어 쓴다는 뜻입니다.

15

00:02:05,725 --> 00:02:15,835

끌어 쓰는 인납, 육의전 같은 상업기관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무납 형태로 재정 적자분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16

00:02:16,402 --> 00:02:27,013

부세 과다 징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은 1498년 무오사화 이후 관행으로 굳어집니다.

17

00:02:27,013 --> 00:02:37,056

무오사화는 연산군이 국정 장악에 자신감을 가지고 김종직 일파들을 제거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사변이었습니다.

18

00:02:37,056 --> 00:02:49,002

이후에 한층 권력을 강화했던 연산군은 무오사화 이후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관행을 만들어 갑니다.

19

00:02:49,002 --> 00:02:56,376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을 아예 크게 키우자, 파이를 키우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20

00:02:56,876 --> 00:03:00,747

그것이 1501년 신유공안인 것인데요.

21

00:03:00,747 --> 00:03:04,517

이를 통해서 대대적인 재정 확충을 시도합니다.

22

00:03:04,517 --> 00:03:18,865

그런데 그 방향이 지주층인 관료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전세는 증액시키지 않고 곡물과 진상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재정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23

00:03:18,865 --> 00:03:30,076

곧 유전자, 뭐 유전자 중에서는 지주나 관료들이 많겠죠, 보다는 가호를 구성하고 있는 양인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증세안이었습니다.

24

00:03:30,076 --> 00:03:35,481

16세기 부세를 얘기할 때 흔히 ‘전세경, 잡역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25

00:03:35,481 --> 00:03:41,854

전세가 가볍고 잡역, 곡물과 진상을 비롯한 이 잡역이 무겁다 라고 하는데요.

26

00:03:41,854 --> 00:03:50,830

이것이 바로 신유공안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재정 개혁이 만들어 놓은 결과였습니다.

27

00:03:54,100 --> 00:04:01,774

연산군의 폭정은 1504년 갑자사화 이후에 더욱 심화됩니다.

28

00:04:01,774 --> 00:04:21,461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기의 조모인 인수대비 한씨로부터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폐비 윤씨 사건을 들춰내면서 인수대비 한씨와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훈척 세력들을 제거했던 사건입니다.

29

00:04:21,461 --> 00:04:24,364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연산군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30

00:04:24,364 --> 00:04:29,836

그러면서 연산군의 재정지출도 더욱더 커집니다.

31

00:04:29,836 --> 00:04:38,011

신유공안으로 증가한 중앙재정도 왕실의 무절제한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2

00:04:38,011 --> 00:04:49,355

연산군 말기의 재정지출은 신유공안에서 확정한 재정 규모의 10배에 달한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정 낭비를 했습니다.

33

00:04:49,355 --> 00:04:58,531

이렇게 되니까 호조, 각사 그리고 각 창고가 전부 다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34

00:04:58,531 --> 00:05:06,105

이상 연산군의 폭정 그로 인한 체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5

00:05:06,105 --> 00:05:08,608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36

00:05:09,208 --> 00:05:14,247

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37

00:05:14,247 --> 00:05:16,849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 순간입니다.

38

00:05:17,216 --> 00:05:25,224

연산군 대가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39

00:05:25,224 --> 00:05:36,369

다음 차시에는 연산군 이후 조선 왕조의 국가 재정의 파탄과 이로 인한 조세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7,694

지난 차시에는 연산군의 폭정과 그로 인한 체제 위기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

00:00:27,694 --> 00:00:38,204

이번 차시에는 연산군의 폭정이 낳은 유산인 국가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 상태, 농민들의 부세 급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

00:00:38,705 --> 00:00:40,874

우선 연산군의 유산입니다.

4

00:00:40,874 --> 00:00:52,852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이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군 대에 시작된 적폐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5

00:00:52,852 --> 00:01:05,865

중종은 그 반정을 일으킨 관료들의 기대와 달리 연산군 대에 만들어진 악폐, 악습으로부터 폭 젖어 있던 그럽고 그런 군주였습니다.

6

00:01:05,865 --> 00:01:11,971

왕실이 직계, 왕실이 직접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직계라고 그럽니다.

7

00:01:11,971 --> 00:01:26,653

왕실이 직계의 형식으로 공공재원을 빼돌리고 재정 운영 규모는 신유공안의 범위를 항상 초과했으며 그로 인해 농민들의 과세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8

00:01:26,653 --> 00:01:37,430

직계는 국왕이나 왕실이 명령만 하면 모든 국가 재정이 왕실 재정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들이었습니다.

9

00:01:37,430 --> 00:01:42,435

그에 따라 왕실 재정은 곧 국가 재정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10

00:01:42,435 --> 00:01:54,881

오늘날 현대 북한의 체제하에서 북한 경제가 수령 경제다 그리고 동일시된다고 흔히들 북한 학자들은 많이 하는데요.

11

00:01:54,881 --> 00:01:56,516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12

00:01:56,516 --> 00:02:02,322

왕실 경제가 조선 경제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13

00:02:02,322 --> 00:02:07,927

중종도 집권 후반기가 되면 재정지출이 더 커집니다.

14

00:02:07,927 --> 00:02:18,338

그래서 신유공안의 10배를 초과하여 연산군 말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재정 규모의 지출이 커지게 됩니다.

15

00:02:19,472 --> 00:02:24,310

중종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명종입니다.

16

00:02:24,310 --> 00:02:27,780

명종은 참으로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17

00:02:27,780 --> 00:02:44,097

여자 연산군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폭력성을 띠었던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 윤씨가 수렴청정 섭정을 하면서 재정지출은 중종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18

00:02:44,097 --> 00:02:55,408

이 시기는 왕실 소속 재정담당 부서인 내수사가 자체적으로 공문을 발행하여 전국에 걸쳐 노비와 토지를 대대적으로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19

00:02:55,408 --> 00:03:15,662

여기에 연산군 이래 60년 가까운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관료층, 서리층들도 점차 부패 사슬 구조에 빠져들고 그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약탈, 갈취 행위가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0

00:03:16,396 --> 00:03:24,671

15세기 후반 국가재정과 그 이후 국가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00:03:27,674 --> 00:03:33,646

15세기 후반에는 1년 전세 수입이 25만 섬 내외였습니다.

22

00:03:33,646 --> 00:03:41,487

여기에는 함경도와 평안도 및 경상도의 일부 전세, 국방을 위해서 남겨둔 전세들입니다.

23

00:03:41,487 --> 00:03:48,861

그리고 각 지방 군자감 분원에 포함된 예비곡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4

00:03:48,861 --> 00:03:54,734

순수하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세입만 25만 석이었습니다.

25

00:03:54,734 --> 00:04:02,375

문무 관료의 녹봉으로 지출하는 재정 규모가 매년 12만에서 14만 섬이었습니다.

26

00:04:02,375 --> 00:04:07,714

그러면 매년 10만 섬 내외의 잉여분이 발생했습니다.

27

00:04:07,714 --> 00:04:14,454

이 잉여분은 군자창, 풍저창으로 이관되어서 예비비로 비축되었습니다.

28

00:04:14,454 --> 00:04:25,865

이런 상황이 수십 년 이상 지속되면서 곡식을 저장할 장소가 부족하여 창고 바깥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비와 바람에 노출된 곡식들은 썩어 나갔습니다.

29

00:04:25,865 --> 00:04:30,003

바로 문경지치의 재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

00:04:30,003 --> 00:04:35,008

그러나 연산군 대가 되면 과도한 재정 지출이 일어납니다.

31

00:04:35,675 --> 00:04:45,885

왕실이 세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횡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면서 호조와 각사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32

00:04:45,885 --> 00:04:54,527

뿐만 아니라 군자창, 풍저창, 사섬시 등의 비축된 예비비가 점차 감축되기 시작했습니다.

33

00:04:54,527 --> 00:05:00,466

중종도 연산군 대의 악습을 벗어던지지 못한 군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4

00:05:00,867 --> 00:05:12,211

1517년 25만 섬의 전세 세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도와 함경도에 비축된 곡식을 중앙재정으로 이관하기 시작합니다.

35

00:05:12,211 --> 00:05:18,918

1529년에는 군자창의 지방 분원에 비축된 예비곡도 중앙재정으로 이관합니다.

36

00:05:18,918 --> 00:05:22,322

모든 재정을 중앙재정으로 이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37

00:05:22,655 --> 00:05:29,228

명종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25만 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8

00:05:29,228 --> 00:05:34,000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예비비는 형편 없이 격감되었습니다.

39

00:05:34,000 --> 00:05:40,273

그래서 명종 중반이 되면 이제 세입은 14만 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0

00:05:40,273 --> 00:05:48,014

14만 석은 관료와 군인들에게 지급할 녹봉, 봉급의 마지노선입니다.

41

00:05:48,014 --> 00:05:50,616

이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42

00:05:50,883 --> 00:06:04,063

그 원인은 양인 농민층의 노비로의 투탁, 유리, 대규모 이주로 인해 양인층이 급감하고 전세 납부 대상 토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3

00:06:04,063 --> 00:06:13,539

이런 상황에서 1553년이 되면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자주 흔히 발생했습니다.

44

00:06:13,539 --> 00:06:29,255

1556년 중앙관료의 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해주던 직전세의 분급이 중지되면서 더 이상 수전 제도, 마지막 수전 제도의 형식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45

00:06:29,255 --> 00:06:38,664

이와 같이 국가 경상비, 예비비의 수입 지출 그리고 악화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00:06:39,198 --> 00:06:50,343

그러면 16세기에 국가 경상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7

00:06:50,343 --> 00:06:53,679

실선이 세입 부분입니다.

48

00:06:53,679 --> 00:06:58,518

그리고 그 위에 배치되어 있는 점선이 세출 부분입니다.

49

00:06:58,518 --> 00:07:02,221

세출이 늘 세입 부분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50

00:07:02,221 --> 00:07:05,525

이른바 만성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51

00:07:05,525 --> 00:07:20,173

1550년 전후까지 20만 섬 25만 섬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그와 같던 세입이 1600년 이른바 임진왜란 이전까지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52

00:07:20,173 --> 00:07:22,942

그래서 10만 섬 이하로 떨어집니다.

53

00:07:22,942 --> 00:07:30,483

아까 제가 14만 섬이 군인들과 관료들에게 녹봉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4

00:07:30,483 --> 00:07:33,820

그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55

00:07:33,820 --> 00:07:41,994

그리고 그것이 극복되는 것은 17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재정 적자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56

00:07:41,994 --> 00:07:56,175

그러니까 연산군 대의 폭정 이후에 16세기 임진왜란 직전까지 국가 재정이 얼마나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유지되었는가, 악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57

00:07:56,342 --> 00:07:58,344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58

00:07:58,344 --> 00:08:07,954

그다음 그림은 국가 예비비가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살펴본 그림입니다.

59

00:08:07,954 --> 00:08:18,130

적어도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되기 이전 이른바 조선의 성세는 100만 섬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60

00:08:18,130 --> 00:08:30,977

그것이 연산군 대를 지나면서 80만 섬 이하로 떨어지고 명종 대를 지나면서부터는 20만 섬 이하로 떨어지고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61

00:08:34,347 --> 00:08:52,765

이렇게 연산군, 중종, 명종 대에 이르기까지 능력 없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국왕들이 연이어 즉위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파탄이 나고 중앙재정은 거의 형해화되다시피 했습니다.

62

00:08:52,765 --> 00:08:59,539

이 과정에서 개혁적 사림파라고 하는 개혁세력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63

00:08:59,539 --> 00:09:15,288

그것은 중종 전반의 기묘사림의 활동 또 인종대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선조 초반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등등에서 16세기 100년 동안 15년 정도에 걸쳐서 개혁세력들이 움직입니다.

64

00:09:15,555 --> 00:09:19,191

그러나 이 개혁 운동은 전부 좌절합니다.

65

00:09:19,191 --> 00:09:26,532

기묘사림의 활동은 1519년 기묘사화의 발발로 좌절되었습니다.

66

00:09:26,532 --> 00:09:39,245

인종 대 사림파의 활동은 인종이 급서하고 명종이 즉위하고 곧바로 을사사화가 터지면서 또 좌절되었습니다.

67

00:09:39,245 --> 00:09:53,125

그리고 사림파가 기대를 한몸에 모았던 선조대도 사림파의 활동은 선조 즉위 이후에 7~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서분당이 발생하면서 좌절되었습니다.

68

00:09:53,859 --> 00:10:01,300

그럼 이렇게 각 개혁세력의 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9

00:10:01,300 --> 00:10:10,276

개혁파는 국가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양인 회복과 토지 확보를 위한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70

00:10:10,276 --> 00:10:13,079

종량책, 양인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71

00:10:13,079 --> 00:10:25,224

한전론, 무한정 커지고 있는 토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같은 개혁안은 왕실과 훈척 세력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72

00:10:25,224 --> 00:10:42,608

결국 두 차례의 사화와 동서분당으로 이들의 개혁은 모두 좌절되었고 악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 사회 상황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채 멸망의 위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73

00:10:42,975 --> 00:10:49,815

이상 국가 재정의 파탄과 농민들의 부세 급증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4

00:10:49,815 --> 00:11:07,299

팽팽한 긴장 속에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던 사회도 단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16세기 한국사회가 온몸으로 증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75

00:11:07,533 --> 00:11:17,643

다음 차시에는 국가 재정 파탄으로 인한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의 동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19,986 --> 00:00:28,395

지난 차시에는 국가 재정의 파탄과 농민들의 부세 급증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

00:00:28,395 --> 00:00:41,441

이번 차시에는 부세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민층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그에 따라 양천제가 동요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00:00:42,175 --> 00:00:47,447

우선 부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4

00:00:47,447 --> 00:00:51,117

연산군 대에 신유공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5

00:00:51,117 --> 00:01:04,464

신유공안은 지주층 혹은 관료층의 반대를 예상하여 전세는 고정시키고 가호세인 공물과 진상을 증액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정 확대안입니다.

6

00:01:05,065 --> 00:01:14,841

근데 공물 진상은 해당 물품의 획득, 구입뿐만 아니라 수송까지도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7

00:01:14,841 --> 00:01:23,149

양인들은 증가한 가호세 확보와 물자 수송을 위해 각종 요역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8

00:01:23,483 --> 00:01:31,458

일단 연산군 대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유공안이 재정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9

00:01:31,458 --> 00:01:33,026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

00:01:33,026 --> 00:01:38,898

신유공안은 지주층, 관료층의 반대를 예상하여 가호세인

11

00:01:38,898 --> 00:01:46,106

공물 진상을 증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세는 고정시킨 그와 같은

12

00:01:46,106 --> 00:01:49,342

재정확충안이었습니다.

13

00:01:49,676 --> 00:01:58,084

그런데 공물 진상은 해당 물품의 획득과 구입뿐만 아니라 수송까지도 담당자가

14

00:01:58,084 --> 00:02:00,620

책임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15

00:02:00,620 --> 00:02:05,492

따라서 양인들은 증가한 가호세 확보와 물자 수송을

16

00:02:05,492 --> 00:02:09,529

위해 각종 요역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17

00:02:09,529 --> 00:02:13,900

이런 상황에서 가호세인 공물 진상은

18

00:02:13,900 --> 00:02:19,139

인두세인 요역과 결부되어 잡역이라고 불렸습니다.

19

00:02:19,139 --> 00:02:27,847

왕실과 지배층의 사치, 낭비가 확산되는 상황, 재정 적자분을 인납, 그러니까 내년

20

00:02:27,847 --> 00:02:35,288

후년까지도 끌어 쓰는 납세 방식이라고 그랬죠, 가납, 추가 납부 방식으로 계속해서

14

00:01:58,084 --> 00:02:00,620

책임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15

00:02:00,620 --> 00:02:05,492

따라서 양인들은 증가한 가호세 확보와 물자 수송을

16

00:02:05,492 --> 00:02:09,529

위해 각종 요역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17

00:02:09,529 --> 00:02:13,900

이런 상황에서 가호세인 공물 진상은

18

00:02:13,900 --> 00:02:19,139

인두세인 요역과 결부되어 잡역이라고 불렸습니다.

19

00:02:19,139 --> 00:02:27,847

왕실과 지배층의 사치, 낭비가 확산되는 상황, 재정 적자분을 인납, 그러니까 내년

20

00:02:27,847 --> 00:02:35,288

후년까지도 끌어 쓰는 납세 방식이라고 그랬죠, 가납, 추가 납부 방식으로 계속해서

21

00:02:35,288 --> 00:02:39,959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22

00:02:39,959 --> 00:02:41,728

농민층의 자격 부담은 한층

23

00:02:41,728 --> 00:02:45,064

커졌고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4

00:02:45,064 --> 00:02:49,035

그 결과 농민층이 몰락하면서 노비로의

25

00:02:49,035 --> 00:02:56,009

투탁 그리고 도망, 이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6

00:02:59,312 --> 00:03:10,690

그다음으로 농민층들의 납세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방납 구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됩니다.

27

00:03:10,690 --> 00:03:29,475

방납은 정부 각 기관이 농민층의 직접적인 공물·진상 물품의 납부를 차단하고 공물주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공물주인을 매개로 하여 독점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28

00:03:29,475 --> 00:03:39,319

15세기 국가가 비교적 도덕적이고 청렴한 시기에는 중앙 각사가 인지세,

29

00:03:39,319 --> 00:03:49,562

그걸 가지고 작지가라고 하는데요,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약간의 사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문제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0

00:03:49,963 --> 00:04:06,179

그런데 연산군 대 이후 점차 공물 진상이 커지면서 공물주인을 거치지 않으면 공물 진상의 납입이 불가능한 형태로 점차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31

00:04:06,579 --> 00:04:09,716

중종 대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32

00:04:09,716 --> 00:04:23,696

중앙 각사의 담당 서리나 노비들이 지방에서 공물을 가져오는 공리들을 공공연하게 침탈하면서 방납 구조가 아니고서는 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2

00:04:09,716 --> 00:04:23,696

중앙 각사의 담당 서리나 노비들이 지방에서 공물을 가져오는 공리들을 공공연하게 침탈하면서 방납 구조가 아니고서는 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3

00:04:24,197 --> 00:04:27,267

명종 대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34

00:04:27,267 --> 00:04:37,810

지방의 수령과 공리는 중앙 각사의 관원과 담당자에게 연결되고 또 이 사람들은 권세가와 연결이 되고

35

00:04:37,810 --> 00:04:52,659

권세가들은 왕실과 이어지는 이와 같은 복잡한 먹이 사슬에 의해서 공납권이 점차 엄청난 이권화하고 그리고 값으로 매겨지고 또 매매되기 시작합니다.

36

00:04:52,959 --> 00:05:00,133

따라서 공물 주인들은 전부 다 왕실과 혹은 권세가들과 결탁된 사람들입니다.

37

00:05:00,133 --> 00:05:02,502

흔히 그것을 부상대고라고 하는데요.

38

00:05:02,502 --> 00:05:16,416

이런 사람들이 공물권을 왕실과 권세가로부터 독점적으로 매입을 하고 주인이 된 다음에 농민들로부터 투자 금액을 최대한 뺏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39

00:05:16,582 --> 00:05:28,594

이렇게 시장 가격이 아니라 독점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폭등하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값으로 매겨집니다.

40

00:05:28,594 --> 00:05:45,578

가령 양 한 마리 값이 쌀 23섬으로 거래되고 종이 10권 값이 나무 100그루 아마 종이 10권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 한 5~6그루면 될 겁니다, 큰 걸로.

41

00:05:45,578 --> 00:05:51,417

활 재료 하나 만드는데 쌀이 100섬,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42

00:05:51,551 --> 00:05:55,988

이런 식으로 이상한 가격, 독점적 가격이 맺어집니다.

43

00:05:55,988 --> 00:05:59,359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

44

00:05:59,359 --> 00:06:03,329

공물주인이 아니라 왕실과 권세가들입니다.

45

00:06:03,329 --> 00:06:12,071

농민이 납부하는 공물 진상의 70~80%가 중간에서 매개하는 독점 상인과 왕실과 권세가들에게 들어갑니다.

46

00:06:12,071 --> 00:06:21,714

아마도 80% 가운데 독점 상인들이 한 10% 20%를 먹었을 것이고 왕실과 권세가들이 나머지 50~60%를 먹었을 겁니다.

47

00:06:21,714 --> 00:06:29,689

최초 징수액의 20~30%만 국가재정체계로 유입이 되어서 재정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48

00:06:29,956 --> 00:06:38,464

그러니 방납구조는 나라와 백성이 다 힘들고 곤궁하지만 극소수의 왕실과 권세가들

49

00:06:38,464 --> 00:06:52,145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고 있는 일부 부상대고들, 주인들 이런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매우 불합리한, 매우 폭력적인 강제적인 부세 납부 방식이었습니다.

50

00:06:55,748 --> 00:07:05,291

이렇게 부세가 급증하고 재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양인층입니다.

51

00:07:05,291 --> 00:07:15,034

우선 왕실과 중앙 각사가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

00:07:15,034 --> 00:07:24,043

재정 손실분을 보존하고자 지방 군현의 토지와 농민, 전민이라고 하는데요, 전민을 공공연하게 침탈합니다.

53

00:07:24,043 --> 00:07:37,790

혈역, 역을 좀 무겁지 않게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복호, 그러니까 가호세나 어떤 요역을 면제시키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54

00:07:37,790 --> 00:07:45,998

지방민들을 왕실이나 중앙 각사 권세가의 사유지로 투속을 유도합니다.

55

00:07:45,998 --> 00:07:53,372

이들은 지방관청의 수색과 추쇄로부터 투속 지방민들을 철저히 보호해줍니다.

56

00:07:53,372 --> 00:07:59,212

이렇게 되니까 몰락하는 농민들이 바로 이런 곳으로 투탁하기 시작합니다.

57

00:07:59,212 --> 00:08:04,917

이른바 양인층이 몰락하고 노비로의 증가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8

00:08:04,917 --> 00:08:12,492

이뿐만 아니라 왕실과 그리고 훈척 세력들은 다양한 형태로 축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59

00:08:12,725 --> 00:08:22,502

불법적인 탈점 그리고 고리대를 통해서 혹은 대대적인 개간을 통해서 전민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60

00:08:23,402 --> 00:08:32,678

자 이렇게 전민들이 사라지고 유실되는 상황은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61

00:08:32,678 --> 00:08:41,454

지역민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왕실이나 중앙 각사 소속의 농장으로 경쟁적으로 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62

00:08:41,954 --> 00:08:46,592

남아있는 군현민들의 고통이 심한데요.

63

00:08:46,592 --> 00:08:49,629

투속민들의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4

00:08:49,629 --> 00:08:54,634

절호, 없어진 가호에 대한 세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5

00:08:55,034 --> 00:09:01,073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당시 국가재정의 운영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

00:09:01,073 --> 00:09:13,452

조선 왕조는 1년 재정 수요를 미리 예상한 후에 해당 규모 내에서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 이른바 양입위출 방식을 채택합니다.

67

00:09:13,452 --> 00:09:21,027

현재의 일단 재정체계는 그 지출을 생각해서 수입을 받습니다.

68

00:09:21,027 --> 00:09:26,332

그러나 당시에는 들어올 것을 사용해서 지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69

00:09:26,799 --> 00:09:34,840

재정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각종 부세는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70

00:09:34,840 --> 00:09:38,778

그것을 가지고 총액제라고 부릅니다.

71

00:09:38,778 --> 00:09:49,488

전세는 전총이라고, 가호에는 호총이라고, 군역 부담은 군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총액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72

00:09:49,488 --> 00:10:02,134

토지와 가호, 군인이 줄어드는 것과는 무관하게 정부와 각 기관은 미리 정해진 액수 곧 총액에 따라서 부세를 부과합니다.

73

00:10:02,134 --> 00:10:17,483

황무지가 발생하고 또 가호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세액이 그대로 남아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결국 친족이나 이웃들에게 강제 할당되기 시작합니다.

74

00:10:17,483 --> 00:10:21,621

친족에게 할당되는 것을 가지고 족징이라고 합니다.

75

00:10:21,621 --> 00:10:25,825

이웃에게 강제 부담되는 것을 가지고 인징이라고 부릅니다.

76

00:10:26,459 --> 00:10:44,844

따라서 마을에서 한 가호가 도망가거나 농지 한 필이라도 황무지가 될 경우 나머지 남아있는 가호에게 파장이 곧바로 확산되어서 마을 전체의 유리 혹은 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77

00:10:45,344 --> 00:10:55,354

16세기 중반에 어느 지방을 시찰했던 암행어사의 보고에 따르면 100집이 있는 고을이 10집으로 줄어들었고

78

00:10:55,354 --> 00:11:12,304

10집의 촌락이 한 집도 살아 있지 않다고 할 정도로 바로 족징, 인징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9

00:11:12,304 --> 00:11:29,488

따라서 왕실과 중앙 각사, 고위 관료나 지배층의 공전, 공민 침탈과 그들의 투숙 유도는 일반 군현과 군현민들의 쇠락, 파괴, 약탈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80

00:11:29,789 --> 00:11:37,229

이상 농민층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양천제의 동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1

00:11:37,229 --> 00:11:52,611

이를 통해 왕실, 권세가, 지배층이 축재에 혈안이 되고 사치와 낭비가 일상화하면서 그 피해가 피지배 양민층에게 오롯이 집중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82

00:11:53,112 --> 00:12:02,121

다음 차시에는 양인층이 몰락하고 노비가 급증하는 그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8,728

지난 차시에는 농민층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양천제의 동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

00:00:28,728 --> 00:00:35,702

이번 차시에 양인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00:00:36,202 --> 00:00:42,042

우선 양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00:00:42,342 --> 00:00:45,545

조선 초기 양인층의 법적 지위를 보겠습니다.

5

00:00:45,545 --> 00:00:56,556

조용조 3세와 군역 혹은 직역과 같은 국역 의무를 수행한 다음에 양인들은 반대급부로서 사환권을 보장받았습니다.

6

00:00:56,956 --> 00:01:00,093

근데 국역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7

00:01:00,093 --> 00:01:04,731

조용조 3세를 내고 군역을 이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8

00:01:04,731 --> 00:01:12,772

호수, 군호가 되어서 번상, 이것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지고 번상이라고 합니다.

9

00:01:12,772 --> 00:01:29,255

입역도 서울 근무도 있고 지방 근무도 있습니다마는 번상과 입역을 위해서는 최소한 3~4결, 평으로 따지면 3~4만 평 정도가 됩니다, 정도의 토지와 성인 남성 3~4명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10

00:01:29,522 --> 00:01:37,864

성인 남성 3~4명 같으면 아마도 한 14~15명 정도가 되는 가호일 것입니다.

11

00:01:37,864 --> 00:01:41,768

그중에 한 두세 가호가 합친 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00:01:41,768 --> 00:01:52,078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가호만이 양인의 의무, 국역을 수행하고 동시에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13

00:01:52,078 --> 00:02:06,893

이들은 중소 지주에 가까운 경제력을 보유한 자라고 하는 점에서 양인들 내에서는 상층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양인들을 상층 양인이라고 부릅니다.

14

00:02:06,893 --> 00:02:20,240

이들이 국역체제에 참여하는 한 이들은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들을 농업경영에 활용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15

00:02:21,207 --> 00:02:35,788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양인 농민들은 상층 양인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환권의 향유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층 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

00:02:35,788 --> 00:02:43,429

따라서 양천제 아래에서도 계층별로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에 차이가 있는데요.

17

00:02:43,696 --> 00:02:56,376

국역 수행과 사환권 향유가 보장된 상층 양인의 지위가 가장 높고 사환권 향유가 불가능하고 거의 의무만이 있는 하층 양인이 그 다음이고

18

00:02:56,376 --> 00:03:04,584

국역 참여가 불가능한 천인, 대표적인 것은 노비죠 가장 낮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9

00:03:04,584 --> 00:03:22,068

국가는 양안과 호적, 군적 작성을 통해서 양천제적 인민 편제와 국역 동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상층 양인에 초점을 맞춰 국역 체제를 운영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

00:03:25,471 --> 00:03:30,176

양인층의 국역 부담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21

00:03:30,176 --> 00:03:36,049

15세기는 국가가 절용, 절감, 긴축 재정을 한 시기였습니다.

22

00:03:36,049 --> 00:03:41,421

따라서 15세기 양인층의 국역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23

00:03:41,421 --> 00:03:50,163

전세와 공물 진상액 모두 합쳐도 생산량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경세였습니다.

24

00:03:50,163 --> 00:03:57,670

왕실 중앙기관의 절약, 절검과 엄격한 재정 운영이 이러한 경세를 가능케 했습니다.

25

00:03:57,670 --> 00:04:04,711

그래도 재원이 남아서 문경지치의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26

00:04:05,411 --> 00:04:07,046

군역을 보겠습니다.

27

00:04:07,046 --> 00:04:19,392

군역은 1464년 세조 10년에 보법이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군호 파악 정책으로 군호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8

00:04:19,392 --> 00:04:29,435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호를 평상시에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종 대에 군호수를 17만여 호로 조정을 했습니다.

29

00:04:29,435 --> 00:04:38,177

그리고 이 수치는 임진왜란 전까지 계속해서 15만여 정도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30

00:04:38,177 --> 00:04:43,116

16세기에 양인층이 부담하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31

00:04:43,116 --> 00:04:45,184

연산군의 폭정이 있었습니다.

32

00:04:45,184 --> 00:05:00,033

1501년 신유공안 제정 이후에 공물 진상의 추가 징수가 본격화하고 별공, 특별한 공, 가외 곡물 징수가 찾아졌습니다.

33

00:05:00,533 --> 00:05:06,339

16세기 양인층의 부담이 급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00:05:06,339 --> 00:05:11,544

그 계기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군의 폭정이었습니다.

35

00:05:11,544 --> 00:05:23,723

1501년 신유공안 제정 이후에 공물 진상의 추가 징수가 본격화하고 그리고 추가되는 공물 진상의 납부, 별공이 찾아졌습니다.

36

00:05:23,723 --> 00:05:31,464

잡역 부담이 급증하면서 양인들은 농사를 돌볼 겨를도 없이 잡역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37

00:05:31,464 --> 00:05:38,338

이로 인해 양인층의 재생산 기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38

00:05:38,338 --> 00:05:45,511

바로 연산군 대 말기에 충청도에서 홍길동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터집니다.

39

00:05:45,511 --> 00:05:49,682

이 이외에도 크고 작은 도적들의 발호가 시작됩니다.

40

00:05:49,682 --> 00:05:54,887

적어도 15세기에는 조선시대에서 도적들이 발호한 것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1

00:05:54,887 --> 00:06:10,303

그러나 16세기가 되면서 연산군의 폭정과 더불어서 이제 농민들도 저항의 형태로서 도적이 발생하게 되고 또 무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2

00:06:10,303 --> 00:06:13,773

그다음에 군역의 성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43

00:06:13,773 --> 00:06:16,676

군호의 편성입니다.

44

00:06:16,676 --> 00:06:22,081

세조 대 보법 실시로 군호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45

00:06:22,081 --> 00:06:34,861

성종 대는 군호를 15만에서 17만 호로 유지하는 한편 그 규모를 초과하는 가호는 호수-보인 체제 아래에다가 또 추가로 솔정을 배치합니다.

46

00:06:34,861 --> 00:06:39,399

그런데도 남은 병력이 있으면 여외병이라고 해서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

47

00:06:39,799 --> 00:06:57,016

그래서 성종 17년, 1486년에 병오 호적을 만들 때 갑사라고 하는 군인 한 명에게 보인은 4명, 솔정은 8명 해서 모두 13명으로 군호를 만듭니다.

48

00:06:57,016 --> 00:07:12,865

갑사호가 번상하거나 국경지대에 부방할 때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12명의 보인과 솔정이 포를 내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줍니다.

49

00:07:12,865 --> 00:07:21,808

군인들은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보인과 솔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50

00:07:21,808 --> 00:07:29,916

군역 수행 대가로서 군직이나 체아직, 체아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월급을 지급하는 어떤 관직입니다.

51

00:07:29,916 --> 00:07:31,684

체아직에 임명됩니다.

52

00:07:31,684 --> 00:07:40,359

호수는 상층 양인을 중심으로 편성했고 보인과 솔정은 하층 양인들이 담당했습니다.

53

00:07:40,359 --> 00:07:48,000

그런 이유로 호수와 보인·솔정 사이에는 사회적 지위가 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54

00:07:48,668 --> 00:08:00,580

그런데 연산군 대에 양인농민층의 부세 부담이 증대하고 몰락이 가시화하면서 예전의 군호 편성 원칙과 군액 고수가 어려워집니다.

55

00:08:00,580 --> 00:08:09,5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 대 확보된 군호의 정원은 임진왜란까지 15만에서 17만 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56

00:08:09,555 --> 00:08:16,863

대신에 예전에 군호를 해체 재구성하여 군역 정원을 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57

00:08:17,363 --> 00:08:30,409

그래서 호수, 보인, 술정 체제로 된 군호가 술정이 떨어져 나간 호수, 보인 체제로 되고 보인마저도 떨어져 나가서 호수 단독호 체제로 변합니다.

58

00:08:30,409 --> 00:08:44,457

예전에 갑사호는 부방과 입역을 위해서 13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였지만 중종 대는 다섯 명으로 또 중종대가 끝나기 전까지 단 한 명이 군역을 지게 됩니다.

59

00:08:44,457 --> 00:08:47,994

이쯤 되면 군역이 엄청난 부담이 되게 되는 것이죠.

60

00:08:48,528 --> 00:08:50,363

그런데도 더욱더 문제가 생깁니다.

61

00:08:50,363 --> 00:08:58,271

중종 대가 되면 차출할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린 아이를 호수로 차정합니다.

62

00:08:58,271 --> 00:09:00,706

이걸 가지고 대정이라 그러합니다.

63

00:09:00,706 --> 00:09:07,413

과거의 경제력 여부를 보지 않고 모든 남정을 호수나 보인으로 충정시킵니다.

64

00:09:07,413 --> 00:09:23,195

중종 중반이 되면 조선 초기에 확정된 군호 편성 원칙이 사실상 파괴되고 말아서 이때가 되면 군역은 이제 엄청난 부담, 의무만이 강조 되는 그와 같은 고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65

00:09:23,462 --> 00:09:28,067

이렇게 되면

상층 양인들도 군역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66

00:09:28,067 --> 00:09:42,381

가중된 부세 부담으로 양인농민층의 몰락이 시작된 상황에서 군호 편성마저 열악해지자 상층 양민들은 군호 편제를 꺼리고 피역이라고 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67

00:09:42,381 --> 00:09:49,989

규정 액수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하층 양인들을 강제로 편입시킵니다.

68

00:09:49,989 --> 00:09:56,996

그래서 군역 의무는 농민층의 몰락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69

00:09:57,630 --> 00:10:12,111

군역은 이제 상층 양인이 아니라 하층 양인들이 양인이라는 단 하나의 신분 때문에 부담해야만 하는 신분세 곧 양역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70

00:10:12,111 --> 00:10:20,519

군역이 사환권이라고 하는 권리로부터 의무만 남게 되는 신분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런 애깁니다.

71

00:10:21,520 --> 00:10:24,857

이런 상황에서 하층 양인들도 군역을 이탈하게 됩니다.

72

00:10:24,857 --> 00:10:32,632

16세기 이후 하층 양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세, 군역의 총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73

00:10:32,632 --> 00:10:41,941

늘어났다가보다도 소멸된 부세와 군역마저도 이 사람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74

00:10:41,941 --> 00:10:55,621

이들이 숨 쉴 겨를 없이 부세와 군역을 부담하기 위해 바빠 쫓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 파산하면 이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숨어들어갑니다.

75

00:10:55,621 --> 00:11:02,428

이 사적 영역이란 국역체제가 미치지 않는 부분, 바로 천민이 되는 것입니다.

76

00:11:02,428 --> 00:11:17,743

한쪽에서는 사적 영역에서의 사민, 천민과 사전, 농장이 급증하는 추세가 다른 쪽에서는 국가재정의 기반의 황폐화와 양인 농민층의 몰락이라는 추세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77

00:11:18,411 --> 00:11:30,289

왕실 소속 내수사, 중앙 지방의 관청 그리고 지배층은 잡역 면제 같은 다양한 특혜를 제시하면서 몰락 농민층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78

00:11:30,289 --> 00:11:40,533

이러다 보니까 사가, 사적인 영역은 날로 풍부해지고, 공가, 공적인 영역은 날로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

79

00:11:40,533 --> 00:11:51,877

이 과정에서 사민과 사전을 많이 확보한 왕실, 권세가, 지주들이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80

00:11:52,745 --> 00:11:59,151

이 과정에서 양인층의 계층 분화들도 또 더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81

00:11:59,151 --> 00:12:06,492

상층 양인은 군역에서 면제되어 군역이라는 경제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82

00:12:06,492 --> 00:12:15,468

하층 양인들은 일종의 신분세인 군역의 부담으로 재생산 기반이 급격하게 더욱더 악화되어 갑니다.

83

00:12:15,468 --> 00:12:26,278

이들은 군역 부담 과정에서 토지, 집 그리고 가재도구 등을 닥치는 대로 팔고 그마저도 부족할 경우 결국 공적 영역, 국역체제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84

00:12:26,278 --> 00:12:32,752

이 이탈한 이 사람들은 왕실, 권세가, 국가기관, 지주들의 농장으로 투속합니다.

85

00:12:33,319 --> 00:12:46,699

그리하여 상층 양인은 군역 면제자이고 지주라고 하는 등식이, 하층 양인은 군역 부담자, 무전자라는 경제적 도식이 성립되기에 이릅니다.

86

00:12:46,866 --> 00:12:54,473

이 과정에서 호구, 이른바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는데요.

87

00:12:54,473 --> 00:13:02,148

그 과정을 16세기 강원도 영서 지방과 강원도 전체 상황을 가지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

00:13:02,148 --> 00:13:06,919

강원도 영서 지방을 표시하는 것이 실선입니다.

89

00:13:06,919 --> 00:13:09,855

그리고 점선은 강원도 전체입니다.

90

00:13:09,855 --> 00:13:22,802

가호수는 1500년 초반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155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종 대조, 명종 대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91

00:13:22,802 --> 00:13:29,942

여기서 가호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가호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92

00:13:29,942 --> 00:13:35,981

그 나머지 인구는 사적 영역, 이른바 노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3

00:13:36,315 --> 00:13:37,817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94

00:13:38,050 --> 00:13:51,964

이 그림은 16세기에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를 낼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95

00:13:51,964 --> 00:14:13,853

여기서도 보면 실선으로 된 영서지방이 6만 결 정도를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낮아져서 1550년경이 되면 1만 결 이하 2천 결, 3천 결로 줄어듭니다.

96

00:14:13,853 --> 00:14:30,669

그러니까 수세전을 수세할 수 있는 그 토지가 줄어들면서 이 토지들도 급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토지는 어디로 가느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의 농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97

00:14:30,669 --> 00:14:35,474

농장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

00:14:38,477 --> 00:14:42,882

이런 상황에서 노비층이 급증하게 됩니다.

99

00:14:42,882 --> 00:14:50,022

이와 관련해서 노비의 사회적 지위, 법적 지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00:14:50,022 --> 00:15:00,666

조선 초기에는 국가가 양인의 국역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한편 이들의 재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01

00:15:00,666 --> 00:15:12,912

국역 부담이 천역보다 크지 않았고 양인에 대한 권리가 신장하면서 적어도 15세기에 양인들은 천인보다 양인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102

00:15:12,912 --> 00:15:14,280

선호했습니다.

103

00:15:14,280 --> 00:15:27,359

그에 따라 양인층이 늘어난 반면 노비층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인구 구성이 양인이 한 70%, 노비가 30% 정도 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104

00:15:28,193 --> 00:15:40,739

연산군 대 이후 국가가 양민층을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요 수치원으로 간주하면서 권리는 사라지고 의무는 커졌습니다.

105

00:15:40,739 --> 00:15:50,015

국역의 부담이 사역보다 더 커지면서 천인층의 사회적 경제 상태가 양인보다 도리어 더 유리해졌습니다.

106

00:15:50,015 --> 00:15:57,556

이로 인해서 양인층의 천인층으로 이동, 신분 하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107

00:15:57,556 --> 00:16:09,468

국역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신분을 낮춰서 사역, 천역을 담당하는 것이 먹고 살기에 재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108

00:16:09,468 --> 00:16:17,910

양인의 천인화 현상은 연산군 대에 시작되었고 중종 대에 더 커졌고 명종 대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109

00:16:18,344 --> 00:16:26,352

그리하여 양인이 줄어들고 천인이 많아지는 이른바 양소천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10

00:16:26,352 --> 00:16:34,860

이런 현상은 이미 연산군의 폭정을 겪은 지 얼마되지 않은 중종 전반기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11

00:16:35,394 --> 00:16:42,935

이렇게 노비로의 확산 과정에서 노비 법제도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112

00:16:42,935 --> 00:16:56,148

고려 후기는 일천즉천법이라고 해서 부계든 모계든 어느 쪽 한쪽이 노비면 자손들은 노비다라고 하는 법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113

00:16:56,148 --> 00:17:02,287

이렇게 되면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게 되면 노비가 되는 것이죠.

108

00:16:09,468 --> 00:16:17,910

양인의 천인화 현상은 연산군 대에 시작되었고 중종 대에 더 커졌고 명종 대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109

00:16:18,344 --> 00:16:26,352

그리하여 양인이 줄어들고 천인이 많아지는 이른바 양소천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10

00:16:26,352 --> 00:16:34,860

이런 현상은 이미 연산군의 폭정을 겪은 지 얼마되지 않은 중종 전반기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11

00:16:35,394 --> 00:16:42,935

이렇게 노비로의 확산 과정에서 노비 법제도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112

00:16:42,935 --> 00:16:56,148

고려 후기는 일천즉천법이라고 해서 부계든 모계든 어느 쪽 한쪽이 노비면 자손들은 노비다라고 하는 법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113

00:16:56,148 --> 00:17:02,287

이렇게 되면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게 되면 노비가 되는 것이죠.

114

00:17:02,287 --> 00:17:07,226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노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15

00:17:07,226 --> 00:17:16,435

그래서 급격한 양소천다 현상을 유발했고 이것이 고려 왕조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16

00:17:16,435 --> 00:17:28,347

조선 초기에는 이 고려 시기에 말도 안 되는 법, 이른바 일천즉천법 대신에 일천법, 한쪽만 양인이면 양인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법입니다,

117

00:17:29,048 --> 00:17:35,654

1414년에서 1468년 사이에는 노비 종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18

00:17:35,654 --> 00:17:41,960

그러다가 1468년부터 1494년까지는 노비 종모법이 시작되었습니다.

119

00:17:41,960 --> 00:17:54,206

노비는 어머니가 만약에 노비면 노비가 되고 아버지가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한 겁니다.

120

00:17:54,206 --> 00:18:07,553

그런데 1484년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에 점차 노비법이 일천즉천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21

00:18:07,920 --> 00:18:11,190

그 원인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122

00:18:11,190 --> 00:18:12,724

잘 나오지 않습니다.

123

00:18:12,724 --> 00:18:27,039

그러나 15세기 후반 점차 사회가 신분제 사회로 강화되는 그 추세와 더불어서 노비법이 다시 고려 후기의 법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124

00:18:27,039 --> 00:18:30,876

양인을 노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5

00:18:30,876 --> 00:18:32,811

하나는 압량위천입니다.

126

00:18:32,811 --> 00:18:37,783

양인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노비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127

00:18:37,783 --> 00:18:54,833

조선 초기에는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압량위천하는 경우에 전가사변, 전체 가족을 변방으로 채워넣는 그 법을 실시했습니다.

128

00:18:54,833 --> 00:19:01,740

전가사변형은 사형 다음에 처하는 중범죄였습니다.

129

00:19:01,740 --> 00:19:11,717

종량 정책 이른바 양인을 확보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조선 초기 양인을 노비로 만들 경우 압량위천법이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130

00:19:11,717 --> 00:19:21,994

그에 따라 국가기관, 권세가, 지주 등이 양인을 노비로 만드는 일은 흔치 않았고 쉽지 않았고 그랬을 경우 처벌을 받았습니다.

131

00:19:23,128 --> 00:19:25,597

두 번째는 투탁이 있습니다.

132

00:19:25,597 --> 00:19:31,703

몰락 양인층이 경제적 파탄으로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는 방식입니다.

133

00:19:31,703 --> 00:19:41,346

이 경우 양인을 오인하여 노비로 만드는 범죄를 적용받아서 곤장 100대 징역 3년형에 처해졌습니다.

134

00:19:41,346 --> 00:19:44,750

다소 완화된 법이죠.

135

00:19:44,750 --> 00:19:56,028

양인의 노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6세기 이후 양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비로 만들 경우 주로 압량위천이 아니라 투속법이 적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36

00:19:56,628 --> 00:19:59,831

세 번째는 양천교혼입니다.

137

00:19:59,831 --> 00:20:05,771

노비와 양인이 결혼한 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138

00:20:05,771 --> 00:20:10,742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혼했을 때 소생을 노비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139

00:20:10,742 --> 00:20:28,994

이것은 일천족천법, 이른바 어느 계통이든 간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들도 노비가 된다고 했을 때 양천교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40

00:20:28,994 --> 00:20:36,001

바로 14세기 후반 노비법이 일천족천법, 종천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41

00:20:36,001 --> 00:20:42,975

이 방식이 새로운 노비 증식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42

00:20:42,975 --> 00:20:55,120

16세기 전·중반 국역체제 해체 이후 지주, 권세가, 국가기관은 이 방법으로 노비를 집중적으로 증식시켜 나갑니다.

143

00:20:55,120 --> 00:20:59,625

양천교혼 추이를 보겠습니다.

144

00:20:59,625 --> 00:21:09,568

주가가 투탁 의사가 있는 양인층을 대상으로 보유 노비와 혼인시켜 그들의 소생을 노비로 만듭니다.

145

00:21:09,568 --> 00:21:18,677

주가는 보유 노비들이 결혼할 때 양천교혼을 강제하여 적극적인 재산 증식에 나섭니다.

146

00:21:18,677 --> 00:21:26,051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노비가 되니까 주인들의 입장에서서는 무조건 양인하고 결혼시킵니다.

147

00:21:26,051 --> 00:21:40,732

그래야지 그 소생들이 노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노비들이 노비들끼리 결혼한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양인들과 결혼시켜서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148

00:21:40,732 --> 00:21:55,247

그것을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경상도 안동과 경주의 양반가들의 양천교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

00:21:55,947 --> 00:22:14,299

이 그림은 14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안동과 경주에 있는 양반가의 양천교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150

00:22:14,299 --> 00:22:26,445

여기 보면 고려 후기에 60% 50%까지 증가했던 양천교혼율이 조선 초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151

00:22:26,445 --> 00:22:38,290

이때는 일천법이라고 해서 이른바 노비종부법이 실시되고 있던 시기 그리고 양인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52

00:22:38,290 --> 00:22:40,359

주목되는 것은 바로 세조 대입니다.

153

00:22:40,359 --> 00:22:44,162

세조 대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10%대로.

154

00:22:44,162 --> 00:22:51,470

그러다가 연산군 대가 되면서 다시 그 피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155

00:22:51,470 --> 00:22:54,373

여기서 1기, 2기, 3기가 있는데요.

156

00:22:54,373 --> 00:22:56,641

1기는 연산군 대를 의미합니다.

157

00:22:56,641 --> 00:23:03,181

드디어 이제 양천교혼으로 노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58

00:23:03,181 --> 00:23:07,853

2기는 연산군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중종 대 중반까지인데요.

159

00:23:07,853 --> 00:23:10,088

그 피치를 이룹니다.

160

00:23:10,088 --> 00:23:18,363

그리고 중종 중반부터 명종 대까지가 되면 무려 70% 가까이 양천교혼을 시킵니다.

161

00:23:18,363 --> 00:23:27,005

그리고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이유는 양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

00:23:27,005 --> 00:23:34,246

양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양천교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163

00:23:34,246 --> 00:23:41,3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직전까지 양천교혼율은 50%가 넘습니다.

164

00:23:41,319 --> 00:23:49,895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는 국역체제가 해체되고 있는 1기, 2기, 3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5

00:23:50,629 --> 00:24:05,510

그래서 다시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고려 말에 양천교혼율은 46%, 조선 초기에 37%로 떨어졌고

166

00:24:05,510 --> 00:24:19,391

그리고 일천법이 실시되고 있던 이룬바 성종 때까지 최저 13%에서 최대 28%로 급감합니다.

167

00:24:19,391 -->

00:24:22,893

가장 낮았던 시기는 세조 대입니다.

168

00:24:22,893 --> 00:24:34,072

세조 대는 호구제 개혁을 단행한 시기로서 양천교혼 비율이 13~15%로 가장 낮았습니다.

169

00:24:34,072 --> 00:24:42,280

그런데 경국대전이 제정되는 그 무렵부터 이제 노비법이 종천법으로 전환합니다.

170

00:24:42,280 --> 00:24:47,252

이때부터 양천교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71

00:24:47,252 --> 00:24:51,756

그 스타트는 바로 연산군 대였습니다.

172

00:24:51,756 --> 00:24:58,730

양천교혼율이 40% 이상으로 증가하여 양민층의 본격적인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73

00:24:58,730 --> 00:25:05,537

그리고 중종 재위 전·중반기에 두 번째 시기가 되는데요.

174

00:25:05,537 --> 00:25:13,812

이때 양천교혼율이 60%에 달하여 양인층의 노비화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175

00:25:13,812 --> 00:25:20,752

중종 후반 명종 대까지를 국역체제 해체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6

00:25:20,752 --> 00:25:29,761

교혼율은 1544년에 71%로 정점에 도달했고 이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177

00:25:29,761 --> 00:25:46,077

근데 조정 국면의 접어든 것은 교혼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인수의 감소로 더 이상 양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178

00:25:46,077 --> 00:25:50,949

양반들은 사노비를 어떻게 결혼시켰을까요?

179

00:25:50,949 --> 00:25:57,822

보유 노비의 혼인 대상자를 양인이나 관노비에서만 찾았습니다.

180

00:25:57,822 --> 00:26:01,860

이문건이라는 분이 일기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181

00:26:01,860 --> 00:26:05,897

이분이 성주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182

00:26:05,897 --> 00:26:10,635

서울에 있는 노비들이 찾아왔습니다.

183

00:26:10,635 --> 00:26:23,114

그런데 서울에 있던 노비들이 양인과 결혼하지 않고 사비와 결혼해서 소생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노비가 될 판이었어요.

184

00:26:23,114 --> 00:26:26,217

그래서 이문건은 일기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185

00:26:26,217 --> 00:26:37,596

사비로 처를 삼은 가지, 상이, 상실, 석기 등 네 명의 종에게 자식의 소유권을 상실한 대가로 벌을 내렸다.

186

00:26:37,596 --> 00:26:42,701

석지는 아들 다섯 명을 두었다는데 그의 재산을 전부 기상하라고 명했다.

187

00:26:42,701 --> 00:26:46,371

기상이라 하는 말은 전부 바쳐라, 라는 얘기입니다.

188

00:26:46,371 --> 00:26:54,446

너희들이 양인과 결혼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사위와 결혼했으니 소생들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189

00:26:54,446 --> 00:26:57,816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0

00:26:57,816 --> 00:27:07,525

이런 식으로 양반들, 권세가들은 양천교혼을 통해서 노비를 증식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1

00:27:07,525 --> 00:27:13,398

그래서 조선시대 인구 구성에서 양인과 천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2

00:27:13,398 --> 00:27:22,941

조선 초기 이른바 15세기에는 양인이 70%로, 노비가 30% 정도인 양다천소 사회였습니다.

193

00:27:22,941 --> 00:27:33,652

16세기 초반 이후 양인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양인이 50~60% 그리고 노비가 40~50%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

00:27:33,652 --> 00:27:37,288

이게 국역체제 해제 1단계 이야기입니다.

195

00:27:37,288 --> 00:27:48,266

국역체제 해제 3단계인 16세기 중반이 되면 양인이 30%로, 노비가 70% 이상으로 양소천다 사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6

00:27:48,266 --> 00:27:54,706

이쯤 되면 고려 후기 사회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197

00:27:57,709 --> 00:28:04,716

이런 상황에서 조선 왕조는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98

00:28:04,716 --> 00:28:08,953

그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

00:28:08,953 --> 00:28:21,332

이 그림은 국가 재정과 국역체제와 국가 운영 구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00

00:28:21,332 --> 00:28:23,968

재정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

00:28:23,968 --> 00:28:26,371

이게 1단계입니다.

202

00:28:26,371 --> 00:28:30,075

공민층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203

00:28:30,075 --> 00:28:35,780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204

00:28:35,780 --> 00:28:39,350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심화됩니다.

205

00:28:39,350 --> 00:28:47,092

국역체제의 2단계가 되니까 공민층이 유리·도산해서 노비로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206

00:28:47,092 --> 00:28:56,201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는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7

00:28:56,201 --> 00:29:00,839

세 번째는 재정구조가 마비가 됩니다.

208

00:29:00,839 --> 00:29:04,509

이게 국역체제의 해체 3단계입니다.

209

00:29:04,509 --> 00:29:18,623

이렇게 되면서 공민층들도 견잡을 수 없이 몰락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위기 이른바 왕조의 멸망에 견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0

00:29:18,623 --> 00:29:30,735

이런 순환 구조 속에 조선 왕조라고 하는 자동차는 이제 퍼져버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낡아빠진 자동차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11

00:29:31,436 --> 00:29:37,408

이런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됩니다.

212

00:29:37,408 --> 00:29:44,015

공민·공전의 급감과 사민·사전의 급증 추세가 교차하게 됩니다.

213

00:29:44,015 --> 00:29:54,959

한쪽에서는 농장 경영과 노비 지배를 통해 혹은 중앙과 지방의 공권력에 기생한 부정 축재를 통해 엄청난 재화를 축적합니다.

214

00:29:54,959 --> 00:30:03,034

중앙에서는 왕실과 고위 관료층, 서리, 부상대고, 방납주인 등등이 부를 축적합니다.

215

00:30:03,368 --> 00:30:10,408

지방에는 지방관들과 또 사족층들이 그리고 이서층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216

00:30:10,408 --> 00:30:14,646

이 재화들은 방납 구조를 통해서 서울로 집중이 됩니다.

217

00:30:14,646 --> 00:30:26,558

따라서 부를 축적한 이들의 풍요와 낭비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떠들썩하게 아주 화려하게 발달하고 그리고 그런 추세로 갑니다.

218

00:30:26,558 --> 00:30:36,067

지방은 민심이 흥흥하고 비방서, 과서가 나붙기도 하고 또 도적들이 출몰합니다.

219

00:30:36,067 --> 00:30:47,779

궁핍한 농민층이 광범위하게 유리하고 노비가 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진 농민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220

00:30:47,779 --> 00:31:06,497

중종 후반기 이후에 전염병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명종 대가 되면 1551~1552년에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엄청난 인구 감소를 초래합니다.

221

00:31:06,497 --> 00:31:20,578

부역 증가, 부세 증가로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한 사람들이 이제 만성적인 기근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확산되었다, 이런 애 기입니다.

222

00:31:20,578 --> 00:31:25,383

이런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도적들이 봉기합니다.

223

00:31:25,383 --> 00:31:36,995

여러분들은 1559년에서 62년까지 황해도에서 발호해서 중앙군과도 싸웠던 임궽정의 농민반란을 잘 아실 겁니다.

224

00:31:36,995 --> 00:31:52,076

그러나 이것은 이 시기에 농민 반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었을 뿐이고 전국 333개 군현 가운데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25

00:31:52,076 --> 00:31:55,313

이제는 반란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226

00:31:55,313 --> 00:32:01,352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임궽정일 뿐, 이 시대의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이었습니다.

227

00:32:01,786 --> 00:32:05,123

왕조의 위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228

00:32:05,123 --> 00:32:13,598

사민·사전이 급증한 16세기 중반이 되면 상황이 고려 말기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229

00:32:13,598 --> 00:32:14,766

그 말은 뭘니까?

230

00:32:14,766 --> 00:32:19,203

아, 우리도 이제 멸망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31

00:32:19,637 --> 00:32:28,680

1591년에 일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김성일의 상소를 보겠습니다.

232

00:32:28,680 --> 00:32:40,658

가난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건실한 가호, 잘 사는 가호라 하더라도 집을 보니 몇 섬의 곡식만을 보유하고 있다.

233

00:32:40,658 --> 00:32:42,293

그 말은 뭘니까?

234

00:32:42,293 --> 00:32:47,899

약간만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5

00:32:48,666 --> 00:32:52,870

이쯤 되면 이제 조선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36

00:32:52,870 --> 00:32:58,543

그런데 조선 왕조는 그로부터 300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237

00:32:58,543 --> 00:33:09,854

그리고 바로 무너지는 이 시기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국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238

00:33:09,854 --> 00:33:15,560

그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도 조선 왕조는 300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239

00:33:15,560 --> 00:33:17,428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0

00:33:17,428 --> 00:33:22,367

그 수수께끼가 왜 있었는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41

00:33:22,767 --> 00:33:30,808

공적 영역에서 보면 16세기 중후반은 왕조 말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242

00:33:30,808 --> 00:33:48,292

국가의 재정 위기, 국역 체제 해체, 국가 운영 구조의 마비, 양인층의 급감과 노비층의 급증, 수세전의 극감 등등의 양상들이 바로 왕조 말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3

00:33:48,292 --> 00:33:59,470

따라서 조선왕조의 지속성, 500년을 지속한 조선왕조의 지속성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것은 바로 사적 영역입니다.

244

00:33:59,470 --> 00:34:01,939

국역체제 바깥에 있는 영역인 것이죠.

245

00:34:01,939 --> 00:34:07,311

바로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그 영역입니다.

246

00:34:07,311 --> 00:34:12,250

그 영역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7

00:34:12,250 --> 00:34:19,624

그중에서도 바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계층 곧 사족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8

00:34:19,624 --> 00:34:30,968

다음 시간에는 사족층을 살펴봄으로써 해서 조선 왕조가 어떻게 300년을 더 지속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

00:34:31,202 --> 00:34:36,074

이상 양인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50

00:34:36,074 --> 00:34:48,653

이를 통해 16세기는 양인층이 급감하고 천인층이 급증하여 노비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형적 사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251

00:34:48,653 --> 00:34:53,658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국가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52

00:34:54,292 --> 00:35:08,005

이번 강의에서는 이상적인 왕조체제였던 15세기의 사회상,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 인한 체제 위기,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

253

00:35:08,005 --> 00:35:18,049

농민층의 위기와 양천제의 동요, 양민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254

00:35:18,049 --> 00:35:26,891

16세기 이래 조선왕조의 국역체제가 붕괴하고 양천제 또한 동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5

00:35:26,891 --> 00:35:31,295

더 이상 조선은 기존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256

00:35:31,295 --> 00:35:43,80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왕조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7

00:35:44,375 --> 00:35:51,649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사회계층인 사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